

<HEREN> CLASSIC SERIES 1

HEREN

아트

COLLECTOR'S WORLD

한국 최고의 갤러리들이 꿈은 젊은 아티스트 17인
세계적인 아트 페어 하반기 스케줄

Lee U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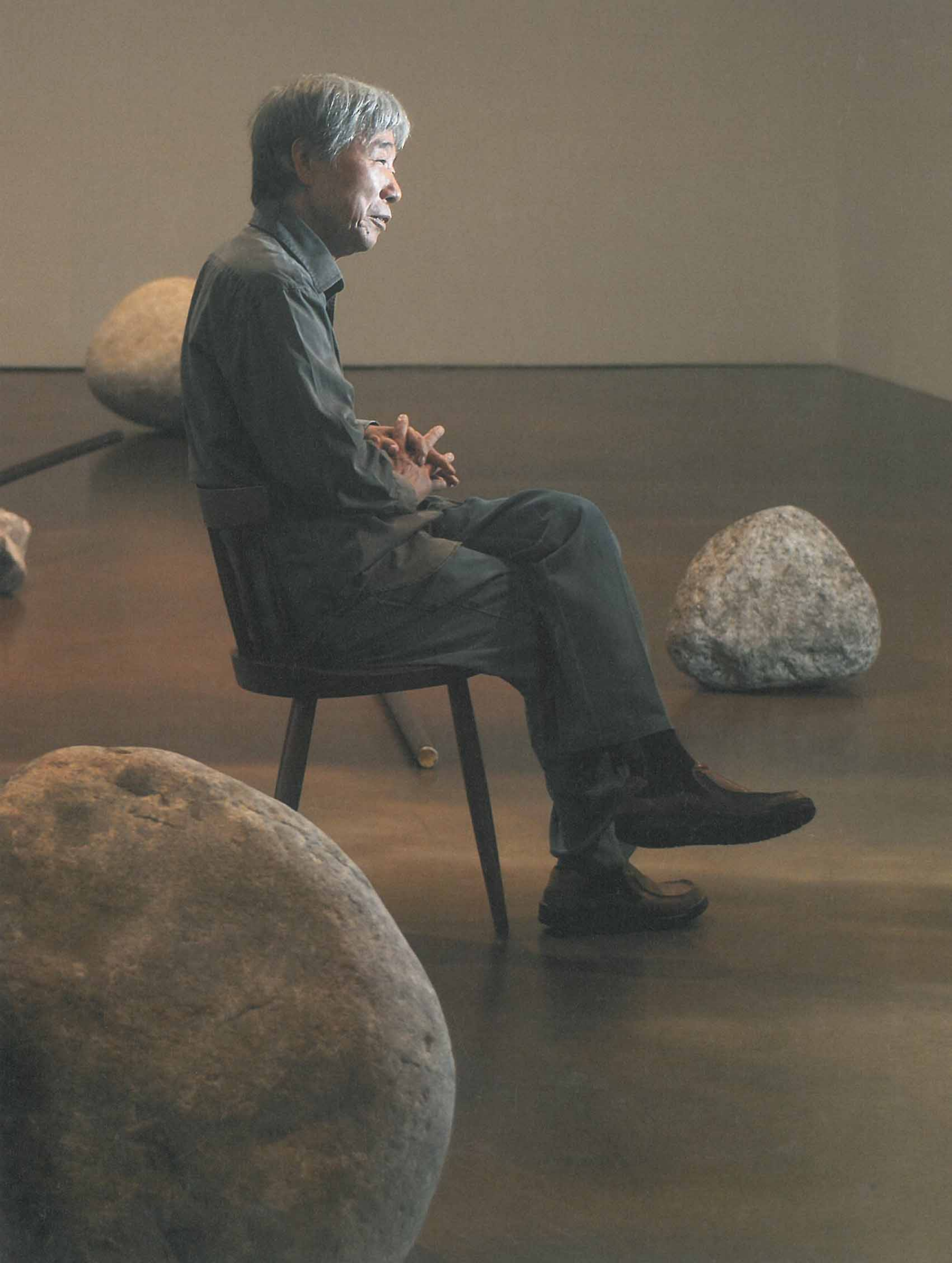
나는 이우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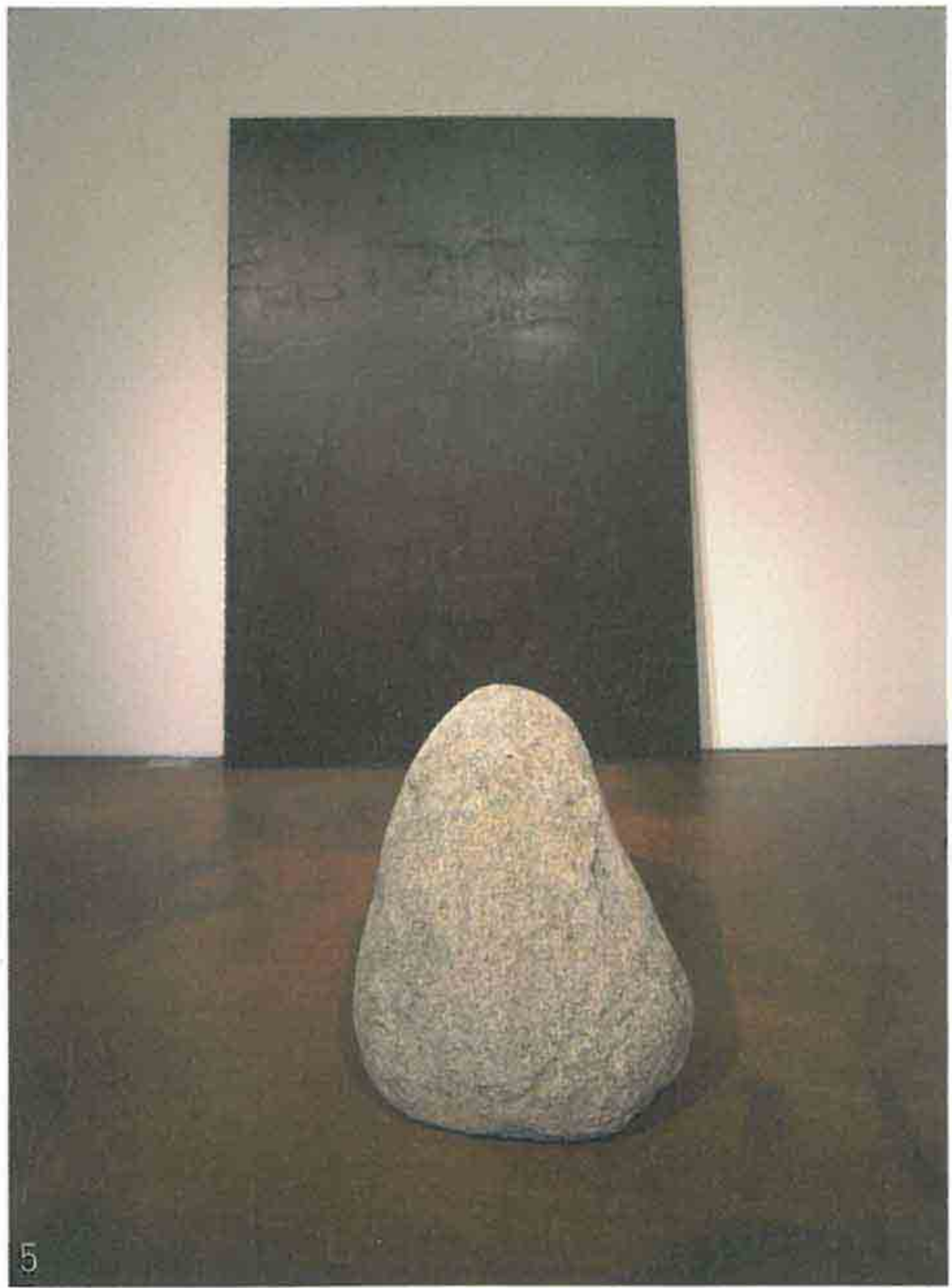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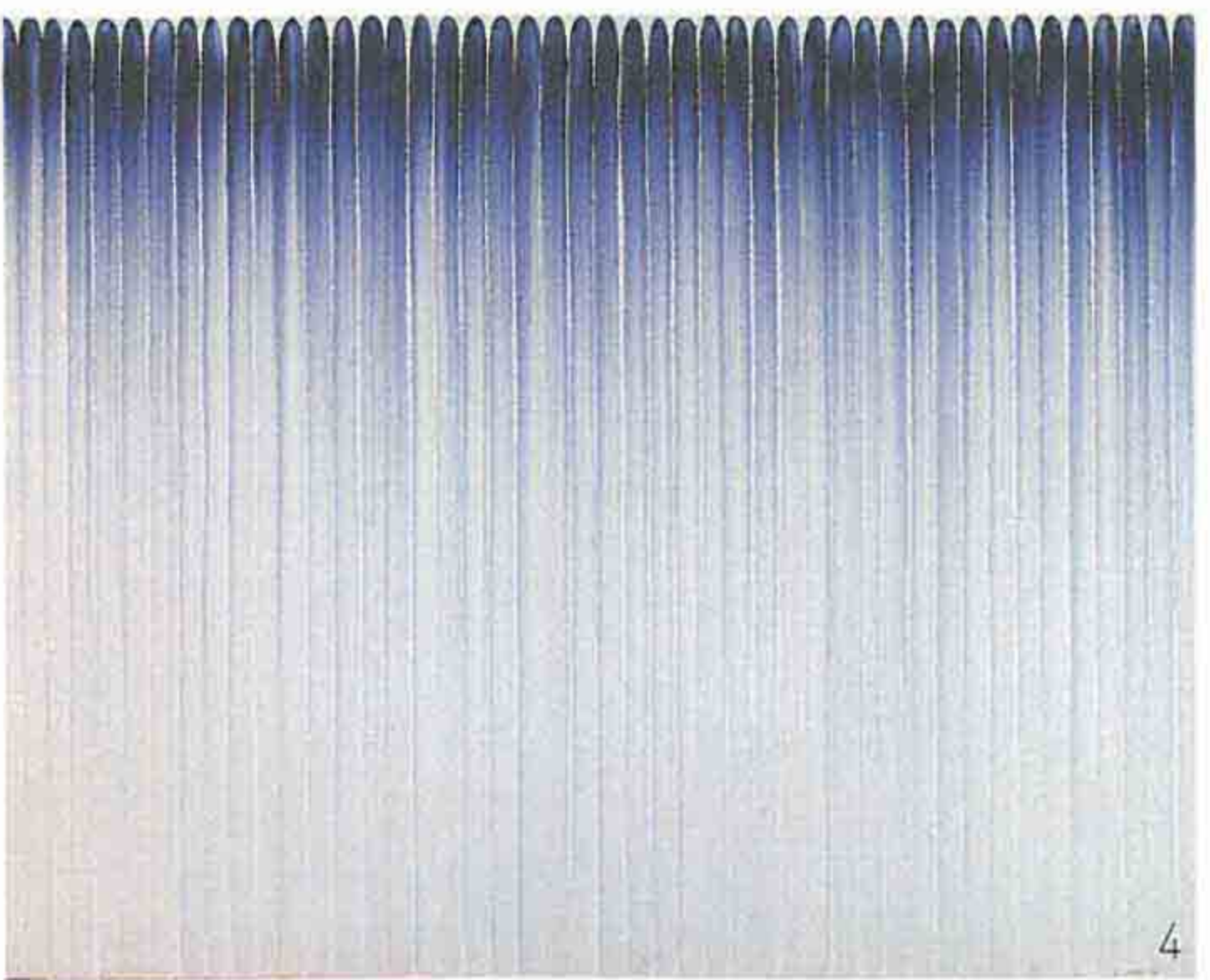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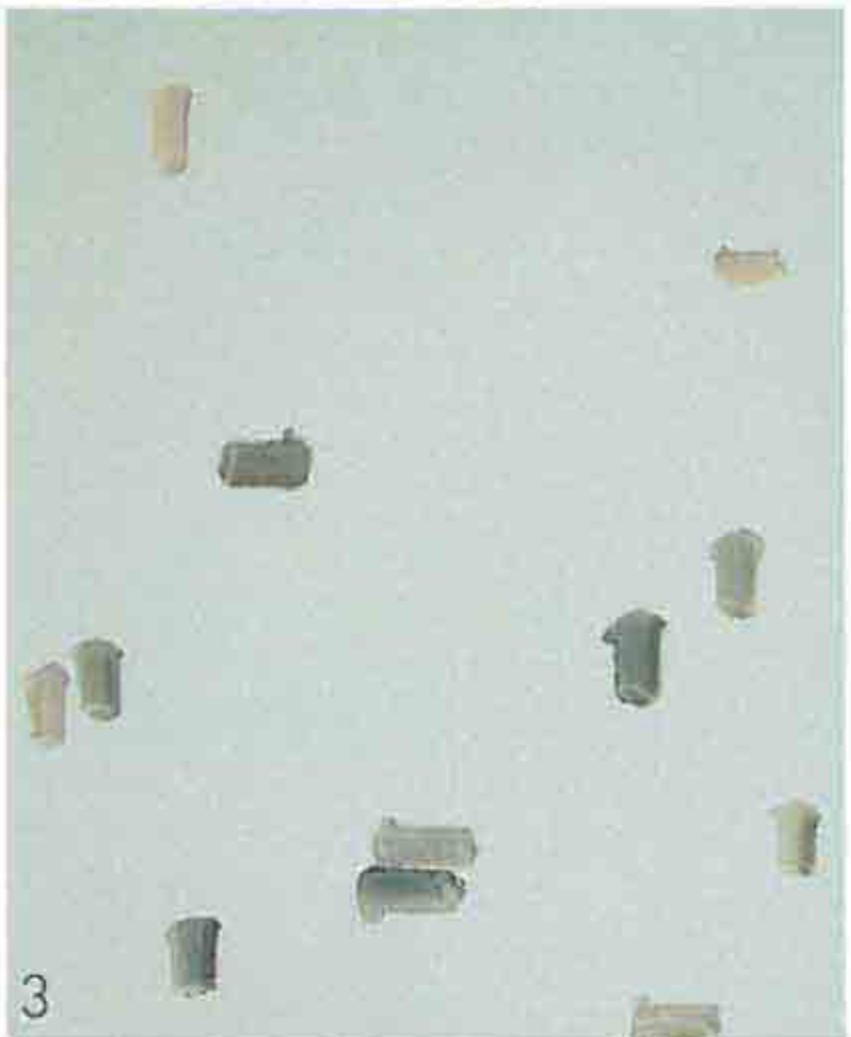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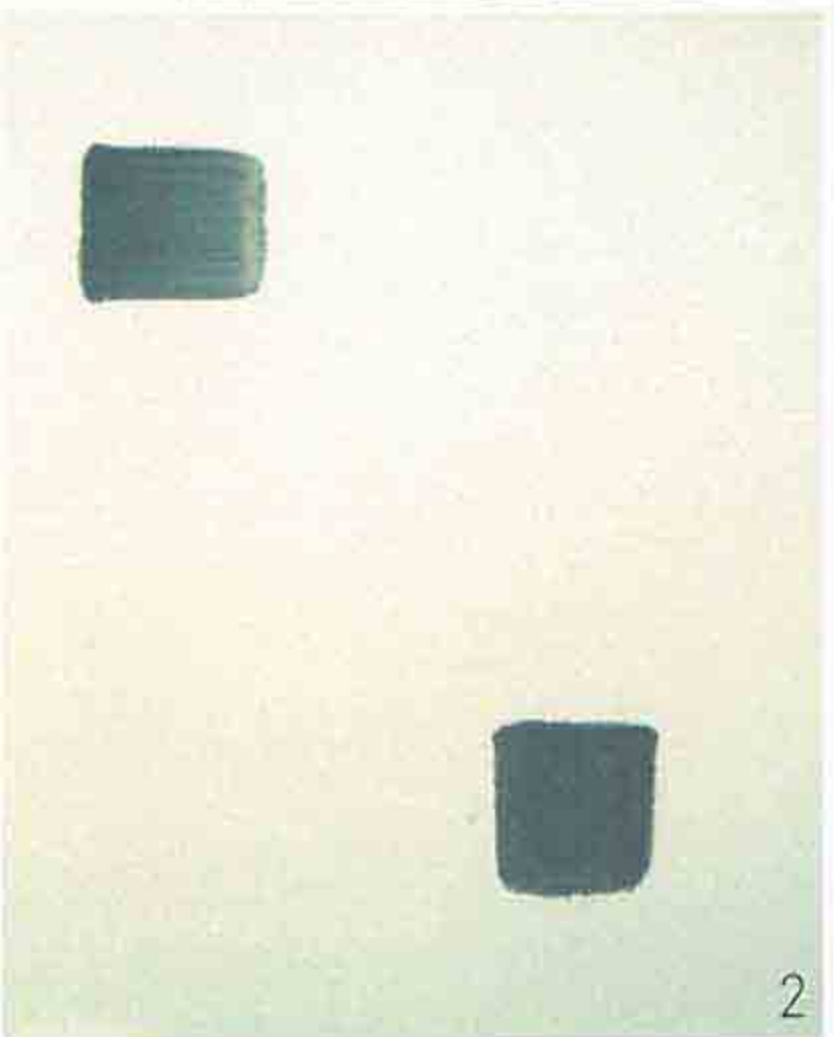
거대한 캔버스에는 점과 선뿐이고, 텅 빈 공간에는 돌과 철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덜어냄으로 채우고 침묵으로 은유하는 여백의 예술, 이우환이라는 우주.

editor 오유리 photographer 이승무

당신은 한국 작가입니까, 일본 작가입니까? 세계 미술 시장에서 '우환(Ufan)'이 일본인 작가로 분류되는 장면을 목격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던 이들을 위해 꼭 한 번 물어야만 했다. 그는 대답 대신 절친한 친구인 아니쉬 카푸어의 이야기를 꺼냈다. 인도 태생인 그는 런던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다. '18년 전인가, 영국의 리스 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이 열렸지요. 오프닝이 있던 날 각국 대사들이며 미술계 인사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이 인도 작가인지, 영국 작가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답하더군요. 나는 어디도 대표하지 않는다. 아니쉬 카푸어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작가 이우환일 뿐이지요.'

백남준이 그랬듯이 이우환은 오로지 이우환으로 존재할 뿐이다. 박수근과 이중섭, 김환기 이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해온 그의 이력을 여기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를 거치면서 블루칩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서양 미술계에 동양의 미학을 전파하며 미술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백남준을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이우환은 '모노해もの派, 나무와 돌 등 가공하지 않은 소재와 철판과 같은 가공된 소재를 대립시킴과 동시에 융화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한 시각예술'의 창시자다. 1981년에는 프랑스 문화훈장을 받았고 1997년에는 파리국립미술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파리 국립 주드롬 미술관에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개인전도 열었다. 일본은 물론 유럽과 한국까지 극복하고 이우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1 세 개의 돌과 세 개의 철판이 만드는 시적 은유 '항(項)-삼각관계'(2009).
- 2 '조응(Correspondence)'.
- 3 '바람과 함께(With Winds)'.
- 4 '선으로부터(From Line)'.
- 5 자연과 문명의 고요한 만남 '항(項)-침묵'(2009).



어쩌면 50년 전, 홀로 일본으로 가는 밀선을 탔던 그때부터 그저 이우환으로서의 삶을 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서울대 미대생이던 그는 도쿄의 니혼대학 철학과에 편입해 니체와 릴케를 읽고 하이데거와 니시다 기타로에 탐닉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1년 중 절반은 일본에서, 나머지 절반은 유럽에서 보낸다), '노마디즘'이란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호모 노마드로서의 삶을 살아온 셈이다. 그것은 일찌감치 서구 문화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차별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하, 인간 이우환은 영원한 떠돌이입니다. 스무 살 때 고국을 떠났는데 이렇게 수십 년을 떠돌아다니며 살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돌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내게는 없습니다. 탐험가도 아닌데 이상하지요, 나는 항상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파 가고파' 노래하며 귀향을 꿈꾸는 이들도 있지만, 고향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후자 쪽인가 봅니다."

그런 성향이 이우환을 은둔의 작가로 살게 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컬렉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우환은 더 끔찍 숨었다. 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 <Sculpture> 展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미술 시장에서 숨이 턱 막혔을 듯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의 회화(구도적 작업 태도와 동양적 절제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응'과 '선으로부터' 시리즈를 떠올려보라)만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겠지만, 돌과 철판과 공간을 만나게 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이우환을 미술사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자리매김시킨 작품들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커다란 돌멩이와 철판이 곳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무심히 보면 그저 돌 하나, 철판 한 장이지만 돌이서 만드는 표정은 가지각색. 지난 40년 동안 작가가 직접 모아왔다는 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정이 제각각 다르다. 어떤 것은 제법 동글동글하니 원만하게 생겼고 어떤 것은 뾰족한 게 강원도 감자 같고, 어떤 것은 위를 향해 불뚝 솟아 있는 게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 한 마리 새 같다. 작가는 각각의 돌에 역시 다 다른 모양의 철판을 짝지워주고 '침묵' '대화' '휴식' '눈짓' '불협화음' '삼각관계' 등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저 떨어져 있는 돌을 불러 인연을 맺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연이 만든 돌과 인간이 만든 철판이 만나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지요, 만든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갈등하고 대립하던 돌을 관계 지음으로써 긴장과 해방이 생기고, 그 너머로 조용히 열리는 우주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과 점만으로 깊은 사색에 들게 하는 그의 그림처럼, 관계 지음만으로 여백의 울림을 터트리는 명상적인 조각이다.

스스로를 '참 말도 못하고, 할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평했지만 이우환과의 대화는 흥미진진하고 유쾌했다. 예술에 관해 전문답 같은 대화를 나눌 때는 영원히 늙지 않는 선비 같았다가, 맛깔난 경상도 사투리로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저

жат거리의 만담꾼(경남 함안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서당에서 <소학>을 공부하며 '금강산도'로 알려진 한국화가 황건용 밑에서 시서화를 익혔다) 같기도 했다. 니체와 밀란 쿤데라를 넘나들며 현란한 비유를 씬 없이 쏟아낼 때는 탁월한 문학가! "젊은 날 일본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글을 썼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말 때문에 못 썼어요. 아무리 기를 써도 모국어를 쓰는 이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더군요. 지금도 독서는 많이 하지만 쓰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이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비평을 씬 없이 써왔고, 시집 <멈춰서서>(2001)와 에세이집 <여백의 예술>(2000)도 발표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이어왔다. 글쟁이들이 못다 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접어 행간에 담듯, 어쩌면 그는 미처 써 내려가지 못한 이야기들을 작품 속 여백으로 투영해왔을 것이다. 일체의 회화적 요소를 배제한 그의 작품 안에 시적 명상, 시각적 은유가 넘쳐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의 귀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섭섭한 이야기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단 한 순간도 정착하지 않았던 이우환은 앞으로도 머무를 생각이 없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은 없다. 왜 자꾸 떠나기를 꿈꾸는가. 그 먼 곳에 무엇이 있기에. "꿈을 좇는 것이지요. 나는 언제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산 속, 누구도 달아보지 않은 섬, 산업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비문명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를 쓰고 때를 쓰며 쫓아다니고 싶어요. 어차피 예술은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아주 어정쩡한 것이지요, 좋고 나쁘고도 없고, 완성도 답도 없지요. 나의 존재로부터 출발해 끝없이 나아가되,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갈 뿐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지금, 비운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 작고 중요한 사람. 그에게 '작가 이우환'이라는 이름 말고, 또 무슨 수사가 필요하겠는가.

<HEREN> 2009년 10월호